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증권신고서 제출...코스피 상장 절차 돌입

강력한 아티스트 라인업·아티스트 간접참여형 사업 확대·자체 플랫폼 기반 생태계 구축...탄탄한 경영 성과
상장 통해 “글로벌 톱 클래스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목표

[2020-09-02]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10월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IPO 여정을 본격화한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장 방시혁, 이하 빅히트)는 코스피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2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빅히트는 이번 상장을 위해 7,130,000주를 공모한다. 공모예정가는 105,000원~135,000원, 공모예정 금액은 7,487억 원~9,626억 원이다. 오는 24~25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다음 달 5~6일 청약을 거쳐 10월 중 코스피에 신규 상장 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표 주관회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제이피모간증권회사이며, 주관회사는 미래에셋대우가 맡았다.

빅히트는 방시혁 의장이 2005년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업으로, ‘음악과 아티스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준다(Music & Artist for Healing)’는 미션 아래 음악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를 이끄는 강력한 콘텐츠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팬덤을 연결하는 빅히트만의 성공 공식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음악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대표 아티스트로는 ‘21세기 비틀스’로 불리는 방탄소년단과 글로벌 슈퍼루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이 있다. 여기에 지난 1년간 쏘스뮤직,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 여자친구, 세븐틴, 뉴이스트 등을 품으며 강력한 아티스트 라인업을 구축했다.

그 결과, 빅히트는 올 상반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2,940억 원, 영업이익 498억 원을 기록했다. 소속 아티스트들의 투어가 중단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작년 상반기에 견줄 정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 견고한 외형과 수익성을 보였다. 빅히트의 이러한 경영 성과는 ▶강력한 아티스트 라인업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사업 확대 ▶자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빅히트 생태계 구축, 그리고 ▶사업 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전문

경영역량 및 선제적 인프라 확보 전략이 견인했다.

빅히트는 “콘텐츠와 팬이라는 본질에 집중하면서 비즈니스 다변화와 플랫폼 혁신을 이뤄냈다”며 “특히, 올 상반기 활동한 빅히트 레이블즈 아티스트 5개 팀이 음반·음원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낸과 동시에 자체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레이블과 비즈니스, 팬덤을 집약하는 ‘빅히트 생태계’를 구현했고, 강력한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다양한 파생 콘텐츠를 생산(One Source Multi Use)하는 간접 참여형 수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빅히트는 아티스트 IP의 확장과 이종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아티스트 및 음악 관련 콘텐츠를 생활 전반에 제공하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을 지향점으로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 본 보도자료는 청약의 권유로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공모절차에서 증권의 매수 또는 청약은 공모와 관련된 증권신고서 수리 이후 오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의하여 작성된 투자설명서, 예비 투자 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빅히트 IPO 일정(예정)]

증권신고서 제출	2020년 9월 2일
기관 수요예측	2020년 9월 24일 ~ 25일
일반청약	2020년 10월 5일 ~ 6일
코스피 상장	2020년 10월 중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모 주식수 (A)	7,130,000주
주당공모가액 (B)	105,000원 ~ 135,000원
공모예정금액 (C=AxB)	7,487억 원 ~ 9,626 억 원
상장 이후 회사 발행 보통주식 총수 (D)	33,846,192주
예상 시가총액 (Cx D)	3조 5,539억 원 ~ 4조 5,692억 원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당공모가액 및 공모모집가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 및 그에 기초한 대표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 후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자료문의

IR큐더스 한정선 이사 (02-6011-2000 #120)

IR큐더스 임규미 선임 (02-6011-2000 #159)